

구약일반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영택 (Friend Pastor)

제 1 강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역자 서문

삼천년기 사역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전세계를 향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국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삼천년기 사역은 제이니 필로우(Janie Pillow)와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에 의해 1997 년에 시작되었다. 삼천년기 사역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 개 언어(세계 인구의 총 42 퍼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인도네시아어, 힌디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암하라어, 텔루구어 등)은 삼천년기 사역자의 감수 아래 각 언어의 자원자들이 번역하여 올린 것이다.

본 강좌는 구약 전반을 소개하는 **구약일반총론**으로 총 4 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이란 강좌명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강좌는 먼저 구약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살핀 후 세 가지 중심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들을 통하여 다스려진다. 셋째로, 이 언약들은 구약의 정경 안의 책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설명되고 적용된다.

제 1 강은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구약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인해 공부하기에 어렵지만 우리 시대와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매우 중요한 책임을 확신하게 하고 구약을 바르게 공부하여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제 2 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라에 대한 광의와 협의의 의미를 살피고, 원시 역사 시대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살핌으로써 구약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통일된 관점을 갖도록 한다. 제 3 강은 **하나님의 언약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련의 언약들을 통해 운영된 것을 논의하고, 구약에 나오는 우주적 언약(아담, 노아)과 민족적 언약(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새 언약(그리스도)을 설명하고,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그 역학적 원리가 언약에서 제외된 불신자와 포함된 불신자와 포함된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제 4 강은 **구약 정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추구할 때 그들에게 권위적이고 상세한 교훈을 제공하는 구약 정경을 거울과 창과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구약 정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구약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주제를 권위적으로 반영하는 거울로 접근하는 주제적 분석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구약을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여 보여주는 창으로 접근하는 역사적 분석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바른 교훈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바르게 살도록 도움을 준다. 구약을 저자가 독자에게 본문을 통해 주려고 의도한 목적과 영향을 식별하게 하는 그림으로 접근하는 문학적 분석은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 그 권위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구약일반총론** 강좌를 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구약이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정말 중요한 책임을 깨닫고 구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일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양질의 원강의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라고 번역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 수준 높은 신학 강좌들의 원본 동영상의 한국어 더빙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번역, 편집, 더빙 등 한국어와 관련된 사역에 자원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역자의 이메일 hessedlee@gmail.com 으로 연락주기 바란다.

이번 **구약일반총론(하나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강좌의 번역은 역자의 친구인 김영택 목사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김영택 목사님은 한국 서울대학교와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미국 리폼드신학교와 풀러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성영락교회, 나성한인교회, 나성북부교회 등을 섬겼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슬하에 아들 김성욱(Nathan S Kim)이 있다. 김영택 목사님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목차 (Contents)

제 1 강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Why Study the Old Testament?)

I. 서론 (Introduction).....	1
II. 우리로부터의 거리 (Distance from Us).....	2
A. 원인들 (Causes).....	2
1. 유기적 영감 (Organic Inspiration).....	3
2. 하나님의 조정 (Divine Accommodation).....	4
B. 종류들 (Kinds).....	6
1. 신학적인 거리 (Theological).....	6
2. 문화적인 거리 (Cultural).....	7
3. 개인적인 거리 (Personal).....	8
III. 우리와의 관련 (Relevance for Us).....	10
A. 예수님의 가르침 (Teachings of Jesus).....	10
1. 부정적인 논평들 (Negative Comments).....	10
2. 긍정적인 확언들 (Positive Affirmations).....	16
B. 바울의 가르침 (Teachings of Paul).....	17
1. 부정적인 논평들 (Negative Comments).....	18
2. 긍정적인 확언들 (Positive Affirmations).....	20
IV. 우리에게 적용 (Application to Us).....	21
A. 도전 (Challenge).....	21
B. 연결점들 (Connections).....	24
1. 동일하신 하나님 (Same God).....	24
2. 동일한 세상 (Same World).....	27
3.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 (Same Kind of People).....	29

V. 발전들 (Developments).....	31
A. 시대적 발전 (Epochal).....	32
B. 문화적 발전 (Cultural).....	34
C. 개인적 발전 (Personal).....	34
VI. 결론 (Conclusion).....	35
VI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35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5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6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Kingdom, Covenants & Canon of the Old Testament

제 1 강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Why Study the Old Testament?)

I. 서론 (INTRODUCTION)

만일 우리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아마도 그들의 대답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주어질 것이다. 보다 긍정적인 반응들은 “구약이 옛날 책이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여전히 들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부정적인 반응들은 “실제로 구약은 아주 오래되고 우리와 무관한 책이므로 읽을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약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견해들을 피력하는 것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놀라며 몸을 움츠린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도, 우리 중의 많은 사람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사실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몇 가지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에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글쎄, 솔직히 말한다면, 구약은 아주 오래되고 우리와 무관한 책이므로 읽을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

본 강의는 구약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는 강좌의 첫 번째 강의이다. 우리는 이 강좌에 대해 **구약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이란 제목을 붙였다. 이 강좌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우리는 이 강의들에서 구약의 세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된 책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들을 통하여 다스려졌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정경을 통하여 이 언약들이 특별한 시간들과 장소들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필요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 강의의 제목을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붙였다. 우리가 바로 구약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 예비적인

문제, 곧 구약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기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세심한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책으로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인해 구약이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이 우리 시대와 갖고 있는 연관성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현 세계의 우리의 삶에 구약을 적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할 것이다. 이제 구약이 자주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II. 우리로부터의 거리 (DISTANCE FROM US)

여러 해 동안 내가 보아 온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구약을 공부할 때 비슷하고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이나 혹은 우리가 처음 신자가 될 때 우리는 구약이 오류없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다. 이 말에 비추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구약이 기독교인의 삶에 쉽게 적용되는 교훈들만을 담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이스라엘의 소망들이나 “도둑질하지 말라” 혹은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들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다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 구약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상,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진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겐 구약이 훨씬 더 낯설고 먼 영역인 것처럼 느껴진다.

구약이 자주 그토록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탐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이러한 거리감의 원인, 즉 구약이 그토록 낯설게 보이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접하는 거리감의 종류, 즉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낯선 것의 유형에 집중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커다란 거리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A. 원인들 (Causes)

불신자들은 구약이 현대인에게 낯선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온갖 종류의 이유들을 갖고 있다. 그들의 평가들 중의 어떤 것은 이치에 맞고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지만

그들의 견해들 중 많은 것은 단지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불신자들에게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고 이로 인해 그들은 구약이 얼마나 이상한 책인지를 과장해서 말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말하는 책은 틀림없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책은 마찬가지로 매우 낯설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현대의 삶과 구약이 매우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전혀 없다.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떤가?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는가? 적어도 구약의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구약을 낯선 영역으로 간주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구약을 유기적 영감으로 알려진 과정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주셨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구약이 하나님의 조정으로 알려진 과정을 통하여 그것의 목적을 이루도록 의도하셨다. 유기적 영감과 하나님의 조정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먼저, 유기적 영감의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유기적 영감 (Organic Inspiration)

우리는 흔히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한 역사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견해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를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원래의 인간 저자들의 개성들, 경험들, 그리고 의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도 아래 인간 저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쓸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수동적인 정보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기계적 영감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단지 성경 저자들로 고귀한 종교적인 것을 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신 것처럼 낭만적으로 영감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통제하셔서 성경이 오류가 없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의지하시며 그들의 개성들과 목적들을 반영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벤후 3:15-16 에서 바울의 서신들에 관하여 말한 것을 고려해 보라.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벤후 3:15-16 개역개정)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벧후 3:15-16 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대로 쓰여진 것임을 확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서신들을
영감하셔서 그것들이 인간의 편지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의 개성이 이 서신들을 통해 드러나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대로 썼다(NIV 의 직역).” 이 성경들은 여전히 **바울의** 서신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관점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하나님과 인간 저자 바울 둘 모두를 포함하는
과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구약에도 역시 피력되어 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왔다. 이것이 또한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하나님이 구약의 궁극적인 저자이실지라도 그분은 이 책들을 쓰시는데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그들의 개성들과 의도들과 상황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썼다.

당신이 유기적 영감에 대하여 생각하면, 성경의 인간 편의 저작성으로 인해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음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구약의 모든 저자들은 고대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살았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글을 썼다. 이와 아주 흡사하게 구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성된 기독교 신학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과 내가 구약을 공부할 때, 우리는 곧바로 구약의 세계와 현대의 세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구약이 자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성경 저자들의 유기적 영감에 의해 조성된 어려움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조정” 또한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의 이유임을 인식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조정 (Divine Accommodation)

“조정”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실 때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해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어린애 같은 말투”로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사 55:8-9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 55:8-9 개역개정)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매우 초월적이시므로—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무한히 뛰어넘으시므로—그분이 주셨던 계시는 인간의 능력에 맞게 조정되었고, 그 결과로 적어도 우리 중 일부라도 그분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조정하신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유한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또한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만났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위하여 구약을 계획하셨다. 그분은 성경이 먼저 고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이해되도록 계획하셨다. 구약의 일차적인 청중이 고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이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들에 기록하여 주신 것은 이것이 중요한 문서들이 기록되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내러티브, 시, 지혜 문학, 그리고 율법과 같은 문학적 양식은 고대 근동의 양식을 따랐으므로 그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신과 내가 구약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와는 매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필요에 맞게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자주 그것이 당신과 나에게 이상한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구약의 저자들과 청중들은 우리 시대와 아주 다른 고대 시대에 살았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커다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거리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곧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있는 거리의 종류들 혹은 유형들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낯설어 보이는가?

B. 종류들 (Kinds)

말할 나위도 없이 구약이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는 모든 방식을 일일이 다 포함시킬 수 없지만, 우리와 구약 사이에 있는 거리를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고려할 것은 신학적인 거리로, 신약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과 구약에 설명되어 있는 신학적인 관점 사이에 있는 차이들이다. 둘째로 고려할 것은 문화적인 거리로, 우리의 현대 문화와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고대 근동의 독특한 문화적 견해 사이에 있는 차이들이다. 셋째로 고려할 것은 개인적인 거리로, 당신과 나(곧 우리)라는 사람들과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들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삶의 신학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영역이 따로 따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에도 그러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세 가지 구별된 유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인위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만나는 신학적인 거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 신학적인 거리 (Theological)

구약을 공부하는데 가장 명백한 장애물들 중의 하나는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신학 사이에 느껴지는 차이이다. 신학적인 거리를 말할 때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이 가졌던 계시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보다 더 총명한 계시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차이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즉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많은 것이 적어도 얼핏 보기엔 우리가 신약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구약을 읽는 모든 기독교인은 어느 면에서는 구약이 신약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신학적인 차이들에 대한 몇 가지 예들에 관해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나 오늘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행진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 그룹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문자적으로 광야를 지나는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구약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나실인의 서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읽는다. 그러나 그러한 서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상하게 보인다.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의 백성이 예배드려야 하는 유일한 장소로 정하시고 어길 시 죽음의 벌 아래 두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속죄를 위해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다. 오늘의 우리는 그러한 의식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모욕을 주는 것으로 여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여 가나안 성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 전쟁에서 그러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구약이 이처럼 신약과 다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도록 요구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좀 당혹스럽지 않은가? 이러한 신학적 차이들의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말할지라도, 우리와 구약 사이에는 커다란 신학적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2. 문화적인 거리 (Cultural)

우리가 본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신학적인 거리 외에, 구약은 또한 고대 근동 세계와 우리의 현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먼 영역과 같이 보인다. 우리가 우리와 구약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말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과 원저자들과 수신자들이 살았던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삶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대 세계, 곧 이스라엘, 가나안, 애굽, 앗수르, 바벨론, 혹은 과거의 다른 문화를 소유한 많은 나라에 있었던 삶에 대하여 읽거나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문화적 거리를 느낀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똑같이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적인 전제들, 가치들, 그리고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들, 관습들, 그리고 관행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과 달랐다.

문화적인 거리는 인간 사회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회적인 구조가 변하면 이전 관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해 보인다. 당신이 시간을 거슬러 단 200 년 전의 당신 자신의 문화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럴 경우 200 년 전과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우리 자신의 나라에서 그렇게 짧은 200 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구약의 세계 사이에 있는 문화적 차이를 훨씬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대 근동의 세계와 우리의 현대 세계 사이에 아주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많은 것들이 유별나게 생소하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는 문화적 영역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세속적인 차원에서 구약의 세계는 주로 농경 세계였다. 우리는 구약에서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읽지만, 많은 현대 도시 사람들은 이 고대의 삶의 양식이 되어 있던 기본적인 과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구약에서 미리 정해진 결혼에 대하여 읽지만, 많은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젊은 남녀들이 그러한 관습을 묵인했는지 의아해한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이 일부다처제를 실행했던 것을 알고서 우리의 이상적인 일부일처제가 도전받는 것을 본다. 우리는 구약에서 노예 제도가 있음을 보고 이 관습에 대하여 당혹스러워한다. 우리는 또한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들의 문화가 제국주의라고 알려진 사회 구조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을 본다. 유명한 제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고대 근동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 구조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현대 민주주의적 이상들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 우리가 구약의 삶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자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의아해한다. 우리 자신의 것과 매우 다른 문화적 환경에 그렇게 흠뻑 젖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구약을 읽을 때 앞에서 본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을 느낀다.

3. 개인적인 거리 (Personal)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거리 외에도, 세 번째 종류의 거리인 개인적인 거리가 있다. 우리가 개인적인 거리 혹은 차이들을 말할 때,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사람들과 달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격차들은 자주 매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고려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본 강의에서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 우리를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점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 자신과는 유별나게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의 기질들은 그들이 살았던 신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세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구약의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느 것보다도 다른 주목할 만한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라. 그들은 하늘의 환상들을 보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천상의 존재들과 씨름을 했다. 이제 잠깐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달랐을까?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들려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며 천상의 존재들과 씨름을 했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러한 체험을 가진다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해 있을 것으로 느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체험을 가졌던 구약의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고려해 보라. 구약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이상해 보이는 문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왕, 여왕, 농부, 노예이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와 기근과 재앙의 위협을 견디어냈다. 우리는 전장에서 거인 앞에 대담하게 나서는 한 소년에 대하여 읽고, 군대를 전장터로 이끄는 한 젊은 여인에 대하여 읽는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를 듣는다. 오늘의 우리들 중 이러한 부류의 상황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구약과의 거리감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약은 우리의 현재 세상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며, 그 결과로 우리는 구약과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신학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감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의 원인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갈 것이다. 구약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거리감을 주는 책이 오늘의 우리에게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리라 기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답이 있지만, 신약이 우리에게 구약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이 그럴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III. 우리와의 관련 (RELEVANCE FOR US)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오해되어 온 신약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이 구약을 시대에 뒤진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약이 우리의 구약에 대한 필요를 없애버린 것처럼, 신약을 읽는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 신약은 이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신약은 구약이 기독교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신약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구약이 관련이 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이 많지만 우리는 두 가지 길에만 집중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고찰할 것이다.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의 우리 삶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자.

A. 예수님의 가르침 (Teachings of Jesus)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약이 중요함을 가르치신 것에 대한 균형잡힌 견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간략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가지 측면, 곧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하게 부정적인 논평들과 구약의 관련성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확언들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얼핏 보기에 구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몇 가지 가르침을 보기로 하자.

1. 부정적인 논평들 (Negative Comments)

예수님께서 구약의 관련성에 중지부를 찍으셨다고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 5-7 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그들의 견해의 증거로 삼는다.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셨는데, 그분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많은 사람에게 그분이 실제로 구약의 가르침들에 반대하셨다는 인상을 남긴다. 잘 알려져 있는 다음 구절들을 들어보라. 마 5:21-22 에서 우리는 살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마 5:21-22 개역개정)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마 5:27-28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 5:27-28 개역개정)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31-32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 5:31-32 개역개정)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 5:33-34에서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해 말씀하실 때 다시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본다.

(마 5:33-34 개역개정)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 5:38-39에서 예수님은 복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 5:38-39 개역개정)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 5:43-44에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 5:43-44 개역개정)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상의 계시이시고 그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충만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야 한다. 그분은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구약의 가르침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차원에 다다르도록 확장시키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들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참으로 구약의 가르침과 모순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들의 추론은 대개 이러하다. 그들에 의하면 구약은 육적인 살인이 죄라는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관심을 증오로 가득찬 마음에 돌렸다는 것이다. 구약은 육적인 간음을 금했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구약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이 구약의 교훈에 이의를 제기하며 성적인 부도덕을 이혼의 유일한 근거로 주장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맹세에 관하여 구약은 맹세를 깨지 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흔히 구약은 “눈에는 눈”과 같은 개인적인 복수의 관습을 승인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믿는다. 그들은 구약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명령을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로 확장시켰다고 가정한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인 이해가 조금이라도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약의 윤리적 권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할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숙고하면 우리는 곧 그런 견해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보다 더 크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구약의 가르침을 반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의도는 구약의 가르침에 대한 통속적인 오해들을 반박함으로써 구약을 승인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구약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던 방식들에 반대하셨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성경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대조들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은 구약과 일치하는 자신의 견해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덧붙인 전통과 대조시키고 계셨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세부 사항이 많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해지고 들려졌던 것들을 다루고 계셨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자체가 아니라 구두 전승들에 관하여 다루고 계셨다. 예수님과 다른 신약의 인물들이 구약을 언급할 때, 그들은 “쓰여진” 혹은 “읽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약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반박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해졌던” 것을 반박하셨고 사람들이

“들었던” 것을 반박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던 것과 그분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대조시키셨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선생들에 의해 영존화된 구두 전승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해진/들은 것**이라고 언급하셨던 것이다.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이러한 구두 해석들에 관하여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셨던 대조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살인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살인의 금지를 확장시켜 증오심을 포함시키셨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구약이 살인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불화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화목과 평강에 대한 구약적 이상은 시 133:1에 잘 표현되어 있다.

(시 133:1 개역개정)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 당시에 통속적인 전통은 육체적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불화를 용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실제 표준을 재주장하심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금지와 증오에 대한 금지를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간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금지를 확장시켜 마음의 간음을 포함시키셨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확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찌되었건,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지 육적인 간음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탐욕 곧 마음의 간음도 역시 금하였다. 출 20:1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출 20:17)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열번째 계명은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이 구약의 부인이 아니라 구약 율법의 재주장임을 안다.

이혼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 구약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믿는 해석자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적절한 이혼 증서를 주는 한 실제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아내와 이혼할 권리를 주었다고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승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 2:16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 2:16)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마 19:3-9에서 예수님은 보다 자세하게 이혼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피력하셨다. 거기서 그분은 자신의 이혼에 대한 반대가 구약 자체, 특히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창조 내러티브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맹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는 구약의 관습에 반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반박하셨던 것이 아니고, 구약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들을 반박하셨다. 분명 예수님 당시에 그의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않는 한 거짓말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가르침에 예수님은 반대하시며, 구약이 단지 맹세를 위반하는 거짓말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잠 6:16-1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잠 6:16-17)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있다. 곧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 . .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 5:37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이유이다.

(마 5:37) 오직 너희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라

예수님은 구약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구두 전승들이 구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셨다.

복수에 관하여, 구약은 복수를 승인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원래 출 21:24의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공식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위한 안내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다. 요컨대, 재판관들은 저질러진 범죄에 맞는 공평한 판결과 처벌을 내려야만 했었다. 이 표준(보복법)은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적용할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에 구약은 그러한 상황에서 친절과 자비가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레 19:18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레 19:18) 네 동족의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 . . .

나는 여호와이다.

예수님 당시에 “눈에는 눈”이란 보복법은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으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했을 때마다 당신도 동일하게 그에게 해로운 일을 되돌려 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법에 대한 이러한 왜곡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들에 있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구약의 교훈을 지지하셨다.

마지막으로, 원수들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구약이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을 용납할 만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잘못 믿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선생들은 명백히 레 19:18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부터 “네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동일하게 적절하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당연히 구약 자체는 그러한 종류의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출 23:4에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시들을 읽는다.

(출 23:4) 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네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자신의 견해와 구약의 견해를 대조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그분은 그 당시의 틀린 해석을 반박하시고 구약의 참된 교훈을 재천명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 자체와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주 구약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며 구약이 기대하였던 믿음과 관습들을 설명하셨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이나 구약의 교훈에 대하여 반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 이와 반대로 그분은 구약에 대한 틀린 해석에 대하여 반대하셨다.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외관상 부정적인 논평들이 실제로 구약에 대한 확언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구약의 권위와 관련성을 확인하시는 것을 비교적 쉽게 보도록 해 주는 구절들을 살필 것이다.

2. 긍정적인 확인들 (Positive Affirmations)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항상 구약 성경을 그분 자신의 가르침의 기초로 언급하셨다. 그분은 변화산에서 율법 수여자인 모세와 선지자들의 머리인 엘리야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일생동안 내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는 데 온 마음을 바치셨다.

그러나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들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산상수훈을 살필 것이다. 마 5:17-18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라.

(마 5:17-18 개역개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분은 구약의 모든 세부 사항이, 일점 일획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끝날까지, 효력있는 것으로 남아 있을 것임을 주장하셨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의미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고 읽으며 예수님이 "내가 [구약] 폐하러 오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알리려 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 마 5:19에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마 5:19)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주목하라. 사람들이 계명들 중 가장 작은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시해 버리라고 권면하면,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매우 선택적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단지 구약 중의 선택된 부분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지하고 따를 것을 주장하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실한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세부 사항에 복종할 것을 기대하셨다. 사실, 그분은 구약의 권위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주장하시며, 우리가 구약 전체에 복종하기만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운명을 소망할 수 있다고 역설하셨다. 이것을 마 5:20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셨다.

(마 5:20)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온갖 종류의 실질적인 질문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 세계에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계명들을, 그것도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지켜야 하는가? 이것들은 이 강좌에서 다룰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기본 원리, 곧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을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구약을 관련없는 것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구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B. 바울의 가르침 (Teachings of Paul)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이 기독교인의 삶에 관련성이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셨는가를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간단히 사도 바울의 증언을 살펴보고 한다. 구약에 대한 바울의 지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사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약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조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외관상 부정적인 논평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구약의 관련성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확인들을 숙고할 것이다. 먼저 바울의 구약에 대한 외관상 부정적인 평가들 중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부정적인 논평들 (Negative Comments)

불행히도,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실제로 구약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믿는다. 이런 진지한 신자들은 그들의 근거로 바울의 서신의 많은 구절을 들지만 우리는 한 가지 예만 들 것이다. 갈 3:1-5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들어 보라.

(갈 3:1-5 개역개정)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3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구약보다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음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그는 신약 신앙이 더 충만한 계시임을 믿었다. 그러나 흔히 좋은 의도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구절들을 읽으며 바울이 구약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책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구약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약의 오용을 반대하였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구약의 율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것인지를 물었다. 3절에서 그는 그들이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인간적인 노력을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인지를 물었다. 각각의 경우에서 바울의 요점은 기독교 신앙의 복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 것이라는 것이었다.

바울의 서신들에 나오는 이러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진술들 때문에 바울이 구약의 관련성과 권위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과 성령으로 그것을 대치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흔히 통용되는 논증은 구약이 기독교인의 매일의 삶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의 문맥을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구약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구약의 남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울은 구원이 선행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던 종교, 곧 율법주의적 종교의 원천으로 구약을 오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굳게 서 있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한 선생들을 반대하였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참된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단언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의 뒷 부분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들어 보라. 10-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갈 3:10-13 개역개정)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단락이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에 의존하던 사람들을 반대하였다. 그는 율법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대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 실행이 되면,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길이다.

정말 바울이 구약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였는가? 정말 바울이 구약의 참된 가르침이 기독교인들과 무관한 것으로 여겼는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바울은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을 사용하였다. 갈 3:11에서 그는 합 2:4을 인용하였다. 거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었다.

(합 2:4)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울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은 실제로 구약의 가르침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구약에 대한 외관상 부정적인 논평들이 실제로 구약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체계로서 오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들이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구약의 권위와 관련성을 강하게 승인했던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2. 긍정적인 확인들 (Positive Affirmations)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바울은 그 자신의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약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언급했다. 구약에 대한 인용들과 암시들이 그의 서신들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이 그들의 삶에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가르쳤다. 롬 15:4에 있는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

(롬 15:4) 이는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구약은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을 일으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 시들, 약속들과 심판들을 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이 구약의 관련성에 대하여 가장 강하고 가장 분명하게 단언한 것은 딤후 3:16-17에서 볼 수 있다.

(딤후 3:16-17 개역개정)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성경”이란 표현이 신약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표현 안에 신약에 대한 우리의 견해들을 위한 암시가 들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곳에서 “성경”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특별히 구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이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구약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다. 요컨대, 바울은 구약이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에 구약이 기독교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와 구약 사이의 거리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약이 우리에게 구약이 오늘의 우리와 갖는 관련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도 보아야 한다.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을 공부하는 것이다.

본 강의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 곧 어떻게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IV. 우리에게 적용 (APPLICATION TO US)

본 강의에서 간단히 논의한 것을 통하여 구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이 거대한 과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구약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위로가 된다. 사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뛰어 넘는 방식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신다. 그러나 그것이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알아서 모든 일을 하시길 기대하며 방관하는 자세로 무관심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방식으로 구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도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책임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책임에 대하여 딤후 2:15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딤후 2:15) 너는 최선을 다해 네 자신을 인정된 자 곧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약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세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구약을 적용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도전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런 오래된 책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점들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구약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발전들을 살필 것이다.

A. 도전 (Challenge)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고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은 무엇인가? 이 도전을 묘사할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심적인 관심사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구약이 오늘의 우리와 갖는 관련성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와 구약 사이에 있는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문제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해 보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오래 전에 살았던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시대에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구약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구약에 의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약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시대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와 구약 사이에는—우리가 구약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간격과 커다란 단절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일을 다루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이 원래 주어졌던 고대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와 구약의 세계가 차이를 보이는 면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역사적인 거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는 것을 그 간격 너머로 가져와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고전 10:11 에서 사도 바울이 적용의 도전을 어떻게 요약하였는지 들어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약의 내러티브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고전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여기서 바울이 적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일을 말한 것에 주목하라. 첫째로, 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 . .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며 사건들과 기록들에 대하여 말했다. 둘째로,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한 경고로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신과 고린도에 있는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말했다. 셋째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말세를 만난” 자들로 묘사할 때 고린도교인들과 고대의 사건들과 기록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언급했다. 이러한 말들은 바울이 분명하게 신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신자들의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종말, 곧 역사의 성취의 시대에 서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용의 도전이 우리가 고대 세계를 다루고, 우리와의 시간의 간격을 다루고, 우리의 현 세계를 다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에 있음을 밝힌다.

첫째로, 오늘에 대한 구약의 적절한 적용은 우리 자신의 세계를 뒤로 남겨두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의 주된 과업 중 하나는 구약을 그 자체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현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고대의 책이 우리를 위해 직접 쓰여졌다고 가정하는 것과 그 자체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진지하게 고대의 책을 읽는 것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고 있다. 구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수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맞추어 만들어진 책을 읽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한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감동시킨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엿듣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원래 무엇을 의미했었는지를 항상 물어야 한다. 구약 단락들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구약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셨던 그 처음의 의도를 설정해 준다. 그들의 우선 사항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의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구약의 단락들을 보며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강좌에 계속되는 강의들에서 우리는 구약의 원래의 저자들과 청중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구약을 읽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둘째로, 구약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시대들을 주의깊게 살피며 성경적 믿음에 일어났던 연관들과 발전들의 종류들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곧 볼 것이지만, 구약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발전하고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것을 다시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구약과 우리 시대 사이에 있는 역사적 기간 동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다. 이러한 증가된 계시의 어떤 것은 구약 자체에 나타나 있고 또 어떤 것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적용의 도전은 우리로 구약이 미래의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사상의 입장에 굳게 서도록 만든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구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현 세계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갖는 책임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과 비슷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새롭고 다르다. 오늘의 우리가 구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구약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적용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를 논할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세계로부터 역사적 간격을 가로질러 우리의 현 세계로 그 교훈을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연결점들은 무엇인가? 무슨 공통성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가?

B. 연결점들 (Connections)

어떤 책이 어떤 사람의 삶에 관련성을 가지려면 그 책의 내용과 독자 사이에 어떤 종류의 연결점이 있어야 한다. 한 책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책이 말하는 것과 독자들의 삶의 경험 사이에 충분한 공통점이 어떻게든 성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책들에 잘 들어맞는 말이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역시 들어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세계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거나 관련을 맺을 우리 세계 사이에 무슨 연결점들이 존재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연결점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지만, 구약의 원래 청중과 우리가 갖는 세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 연결 고리들을 살펴보자.

1. 동일하신 하나님 (Same God)

첫째로, 우리가 구약을 함께 공부할 때 신약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오늘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고대의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섬겼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성경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맺게 해 준다. 하나님은 고대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변하시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만 불변하시다고 가르친다. 불변성이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변성이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면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언약적 약속들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는 그분의 불변성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변하지 않는 통일된 계획의 일부라고 가르친다. 사 46:10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 46:10) 나는 종말을 시초부터 알게 하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알게 하는 자이다. 나는 “나의 작정은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이다.

본 강의들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살필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불변성은 우리에게 구약에서의 그분의 목적들이 신약에서의 그분의 목적들과 연합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차이점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은 두 개의 다른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치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불변하는 목적을 갖고 항상 이 목적을 향해 역사를 움직이게 할 하나의 통일된 계획의 국면들 혹은 단계들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곧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그분의 성품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이셨다. 그분이 어떤 때는 자비를 보이시고, 어떤 때는 진노를 보이시지만, 그분의 항상적인 성품, 곧 그분의 영원하신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히 1:10-12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본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히 1:10-12) 오 주님, 태초에 당신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당신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지만 당신님은 영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당신님은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고 옷과 같이 그것들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당신님의 연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1:17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약 1:17)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에게는 바뀌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여전히 동일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의 초기에는 한 세트의 속성들을 가지셨다가 나중에는 다른

세트의 속성들을 가지신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여섯 살 때 나의 주일 학교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 여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끝마치실 때 방에 둘러 있는 우리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들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매우 심술궂으셨다. 그 때 그분은 어린이들조차도 죽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변하셨다. 신약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기쁘지 않니?” 그리고 당연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뻐했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여리고의 어린애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주일 학교 선생님이 좋은 의도를 갖고 계셨을지라도, 그 여선생님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셨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 시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그분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신약에서 만큼이나 구약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여전하고 항상 지금처럼 정확히 그대로 있으실 것이다. 그분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속성들의 불변성도 역시 구약이 오늘의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를 우리에게 준다. 표면상으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외적 행동이 신약에 있는 그분의 행동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모든 행동은 그의 성품을 반영했고, 그분의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그분이 취하신 행동 역시 그분의 영원하신 본성과 조화를 이룬다고 확신할 수 있다.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자들과 맺으셨던 방식과 하나님께서 신약의 신자들과 맺으신 방식 사이에 있는 유사점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점들은 구약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도록 만든다.

셋째로,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언약적 약속들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되시고, 하시기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유의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그가 아직 성취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그의 백성에게 위협도 하시고 제의도 하셨다. 그러나 위협과 제의는 언약적 약속이 아니다. 언약적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맹세한 것들을 말하고 이러한 언약적 맹세는 신뢰할 수 있다. 히 6:1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히 6:17)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써 그것을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들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창 9:16 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노아와 맺은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전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17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분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세 번 약속하셨고, 대상 16:15-18 에서 다윗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회고했다. 삼하 23:5 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것에 대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다윗의 집의 실패가 국외 추방을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 겔 16:59-60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겔 16:59-60) 주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언약을 깨뜨리며 맹세를 하찮게 여겼으니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젊은 시절에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신약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약속들 중 어떤 것을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기억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언약적 약속이 성취되거나 성취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구약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신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우리는 신약에서 그분이 그 약속들을 지키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이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두 책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신앙과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두 번째 종류의 연결점, 곧 우리가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룰 것이다.

2. 동일한 세상 (Same World)

한 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오늘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동일한 세상으로부터 유래했고 그 동일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구약 신자들의 신앙이 다른 우주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구약과 우리는 공통의 역사와 일련의 공통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로 적어도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연결점을 보게 해 준다. 첫째로, 구약은 우리의 현재의 경험들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배경들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구약은 우리의 현재의 경험들의 많은 것들과 유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구약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에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구약의 가장 명백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구약이 신약 시대의 사건들과 가르침들의 배경이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는 점이다. 구약의 사건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모든 시대 동안 지울 수 없는 자국들을 세상에 남겨 놓았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신약의 윤리적 교훈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왕조의 시조로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들로 추방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분의 선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점들에 있어서 구약은 그것이 제공하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삶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둘째로,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것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구약은 또한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우리 모두는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금언을 알고 있고, 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들과 매우 흡사한 것을 깨닫는다.

구약의 신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다. 구약의 신실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오늘의 우리도 비슷하게 미움을 받고 있다. 그들이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다. 구약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의 유사점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가 피상적인 상이점들을 넘어서 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과 그들의 청중들이 살던 상황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비슷한 상황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구약과 우리 시대 사이에 있는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종류의 연결 고리 즉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한 세상에 이어서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자.]

3.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 (Same Kind of People)

구약의 고대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 사이에 피상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근본적으로 지속되어 온 공통점들도 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우리와 그들은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모두는 타락하여 죄로 물들어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줄곧 보여주는 분명한 가르침이다. 창 1:2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27)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은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더구나, 창 9:6 에서 우리는 죄가 사람을 부패시킨 이후에도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이 나온다.

(창 9:6)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임을 확인하고 있다. 약 3:9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약 3:9) 그것으로[=우리의 혀로] 우리가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울은 고전 11:7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전 11:7) 남자는 ...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우리가 나중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과거에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사람이 이성적이고, 특별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고, 도덕적 혹은 종교적 피조물이란 사실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과 현대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들을 과장하여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 아래 내면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고대 사람들과 그렇게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성적이고 언어적이고 도덕적 특성이 그들의 삶에도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구약이 우리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구약의 저자들과 구약의 독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다. 우리 모두는 롬 3:12 에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말을 잘 알고 있다.

(롬 3:12) 모두가 비뚤어졌고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만이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말한 것이 왕상 8:46 에 나온다.

(왕상 8:4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과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된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우리가 구약의 저자들이 왜 죄와 그것의 오염에 그렇게 많이 집중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구약의 원래 독자들과 아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는 구약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이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죄인들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죄인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관련이 있다

셋째로,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에 빠진 이후에 항상 그랬듯이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그룹들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분의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관하여 출 19:6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회상한다.

(출 19:6)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벰전 2:9 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신약의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벰전 2:9) 당신들은 선택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차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연결하는 영속적인 고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여전히 나누어져 있다.

사람들의 분류를 묘사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매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구별하신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첫째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둘째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셋째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신약 시대에도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로 인해 우리는 구약이 우리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나누어져 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와 구약 사이에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연결 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로서 섬기고 있다.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세상,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약과 연결해 주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났던 발전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돌릴 것이다.

V. 발전들 (Developments)

우리가 이 주제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만 세 가지 연결 고리들에 의해 수립된 패턴을 따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시대적 발전들, 문화적 발전들, 그리고 개인적 발전들이 있어 왔는지를 살필 것이다.

A. 시대적 발전 (Epochal)

첫째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신 불변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기들 혹은 시대들을 따라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던가에 대한 긴 설명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하여 노아보다 더 많이 알았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았고, 다윗은 모세보다 더 많이 알았다. 하나님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그 이전 보다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다. 히 1:1-2 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히 1:1-2)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옛적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불행히도, 우리는 구약을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꼭 해야 하는 시대적 고려들의 종류에 대하여 혼란이 많은 때에 살고 있다. 구약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바르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많은 변형이 있지만, 세 가지 주된 경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다양한 의견의 분포 범위의 한 쪽 끝에 성경의 믿음에 대하여 단편적인 견해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여러 시대들 혹은 시기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들을 강조한다. 사실상, 그들은 구약 시대와 우리 시대의 차이들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신약에 반복되어 있는 구약의 것들만 현대의 신자들에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신약이 구약의 가르침이나 관행에 대하여 논평하지 않는 한 구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양한 의견의 분포 범위의 다른 한 쪽 끝에 성경의 믿음에 대하여 천편 일률적인 견해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여러 시대 사이에 동일하게 남아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사실상 그들은 구약과 신약이 매우 통일되어 있다고 여기므로, 신약이 구약의 가르침이나 관행에 대하여 논평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그대로 구약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한다.

본 강의들에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성경 시대들에 대한 접근법을 따름으로써 이 양극단을 피할 것이다. 우리의 관점은 성경의 역사 기간 동안 사물들이 동일하게 남아 있는 측면과 사물이 변한 측면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부가 우리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차원이 발전했다고 가정할 것이다. 구약의 어떤 것도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없거나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구약의 어떤 가르침을 적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신약이란 필터를 통과함으로써 시대적 조정을 받아야 한다. 요컨대, 구약 전체는 우리에게 관련이 있고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는 신약에 비추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발전적 모델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역사에 적용했던 유추를 따른 것이다. 갈 3:24 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 역사의 단계들을 어린 아이의 성장의 단계들에 견주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갈 3:24) 율법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생이었다.

구약 신앙은 어린 아이에게 주어진 지시들과 같았다면 신약의 신앙은 성인이 된 상속자에게 주어진 지시들과 같다.

성경적 신앙의 발전을 묘사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했던 이 유추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차도로 들어가지 말라. 난로를 만지지 말라.”와 같은 적절한 일련의 규칙들을 준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차도 밖으로 나오거나 난로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들은 성인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규칙들이 주교자 의도했던 지혜를 기억하고 있기를 정말로 기대한다. 우리는 성인들이 차도와 난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어른이 두 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규칙들에 얽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어른이 두 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주어진 규칙들에 들어 있는 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것이다.

본 강의들을 통해 볼 것이지만, 성경적 신앙에도 이와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은 어린 아이에게 주어지는 규칙들과 비슷하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조건에 적합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신자들로서 우리는 두 가지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마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신앙을 모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구약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성경적 신앙의 발전적 모델은 우리로 구약의 진가를 인정하고 구약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치지만 말세를 만난 자들로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다.

B. 문화적 발전 (Cultural)

둘째로, 우리 시대에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적 발전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약의 본문과 연관시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구약에 드러나 있는 문화들과 우리 자신의 세상의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들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발전들을 인정하기 위해,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구약 사이의 문화적 유사점들을 보는데 관심을 써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화적 패턴들로 아브라함의 경험과 아주 흡사한 것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가 다윗의 문화와 같은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보는데도 관심을 써야 한다. 어떻게 인간의 문화가 구약의 고대 사회들로부터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었는가? 어떤 관습들과 관행들이 다른가? 우리가 구약을 현대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답하며 구약의 메시지에 적합한 문화적 조정을 해야 한다.

C. 개인적 발전 (Personal)

셋째로,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의 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현대 사람들과 고대 사람들 사이에 상이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고대 본문인 구약을 적절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면 이 개인적인 변화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과 비교되는가?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우리의 영적 상황은 무엇인가? 구약의 여러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사고들, 행동들, 그리고 감정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고대 구약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 사이의 변화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강의들을 계속하면서 자주 우리는 구약의 특정 주제들의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발전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우리 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대로 구약을 다루는 데 실패할 것이다.

VI. 결론 (CONCLUSION)

이 강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이 고대의 책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우리는 신약이 강하게 구약이 우리에게 매우 관련성이 깊음을 승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약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지도할 권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구약의 주제들이 시대를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현대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예비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가 **구약의 나라, 언약들, 그리고 정경**이란 이 일반총론 강좌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색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의 놀랄 만큼 풍부한 원천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VI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1. 구약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2 가지 원인의 이름을 말하고 서술하라
2. 구약과 우리 사이에 흔히 발견되는 3 가지 종류의 거리를 서술하라.
3.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4. 구약의 지속적인 가치에 대하여 바울의 가르침은 어떻게 단언하는가?
5. 구약이 현대 세계와 관련이 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6. 구약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도전을 서술하라.
7. 구약의 교훈을 우리 현대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연관들을 서술하라.
8.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일어났던 3 가지 중요한 발전들을 서술하라.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1. 구약이 당신에게 혼란스러웠던 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은 처음에 무엇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겪었는가?
2.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살인과 간음과 원수 사랑과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상반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3.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무엇 때문에 말해진(=들은) 것과 쓰여진 것을 계속해서 대조하셨는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셨던 것들과 같은 오류들을 저지를 유혹에 빠지는가?
4. 구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5.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한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